

“자식같은 학생들 챙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밥값 올려요”



대의동 학원가서 ‘2000원 백반집’ 운영 장경숙 사장

“우리집에서 2000원짜리 밥먹고 5000원짜리 커피를 사먹는 애들도 많죠. 주변에서 밥값을 좀 올리라고 하는데 눈치밥 먹는 고시생들 밥값을 어떻게 올려요...”

3일 오전 8시 광주시 동구 대의동 학원가에 허름하게 보이는 ‘종로먹거리’라는 백반 집을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구수한 ‘북어국’ 냄새가 났다. 10평 남짓한 식당 안에는 90년대 초등학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 의자에는 20대 청년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고, 뒤이어 들어온 환경미화원들은 익숙한 듯 반찬통에 담긴 잡채를 수북히 접시에 옮겨 담았다. 한쪽 벽면에는 글씨마저 희미한 ‘현금 2000원·식권 1800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종로먹거리” 사장 장경숙(여·59)씨는 식당을 개업한 뒤로 6년 동안 단 한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달치 식권을 끊으면 한끼에 1800원 씩이지만 직장인들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고 학생들만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루 손님이 150여명에 달하는데도 장씨가 손에 쥐는 금액은 한달에 30만원 남짓이다. 지금이라도 다른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

6년째 한번도 가격 안올려

한달 수익 30만원 남짓

학생들과 정 때문에

식당 운영 포기 못해

면 20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게 그녀의 설명이지만, 학생들에 대한 ‘정’(情) 때문에 식당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

사실 올해 밥값을 올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하루 250명 남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식당은 점차 손님이 줄더니 매출도 절반으로 줄었다. 이익은 커녕 적자를 보는 날이 허다하다.

그녀는 “최근 식당을 포기하려고도 생각했었어요. 아무래도 가격이 낮다 보니 식당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에 부쳤습니다. 그러나 단골 학생들이 ‘이요. 엄마 밥보다 맛있어요’라고 말하는데, 차마 이 학생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학원가라는 특성상 대학을 졸업한 뒤 고시를 준비하는 늦깎이 대학생들이 주로 그녀의 식당을 찾는다.

취업난 속에서 고향을 떠나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당연히 부모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런 학생들의 끼니를 챙겨주고 싶은 게 장씨의 마음이다.

2000원짜리 밥을 팔면서도 점심시간이면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디저트’로 내주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만땅으로 시집살이를 시작한 그녀는 어린 3남매를 키우기 위해 남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렇게 25년을 일한 끝에 자신의 식당을 갖게 됐지만, 이미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 가정을 꾸린 뒤였다. 더이상 약삭같이 돈을 벌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음에도 습관이 된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그녀다.

장경숙씨는 “우리 바깥양반이 죽기 직전까지 입버릇처럼 ‘입에 넣은 것도 뱉어서 남들 챙겨주느냐’고 난리도 아니었다”며 “마음고생하는 학생들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고시에 합격하거나 시험에 떨어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위해 찾오는데, 나는 일할 수 있게 해준 학생들이 오히려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성서 청렴워크숍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김옥이)이 보훈공단 청렴성 제고를 위해 최근 장성군 청렴문화센터와 합동으로 참여 및 현장 교육 위주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청렴워크숍을 개최했다. <보훈공단 제공>

광주도시공사 ‘사랑나눔 헌혈’ 행사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응준)는 지난 3일 빛고을고객센터 13층 대회의실에서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헌혈행사에는 도시공사 임직원을 비롯한 클센터 직원 120여명이 참여해 나눔을 실천했다.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시, 영산강변 자전거 거점 터미널 운영



광주시는 광주천과 영산강변에 조성된 자전거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5일부터 자전거 ‘강변축 거점터미널’을 다시 운영한다. ‘강변축 거점터미널’은 교량 아래 공간을 이용해 자전거 무상수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전거 통합 서비스 센터’다. <광주시 제공>

구영철 송정초 교장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상’ 수상



구영철 송정초 교장이 ‘2015 자랑스런 대한 국민 대상’ 교육발전부문 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런 대한 국민 대상은 대한국민운동본부와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산악인 김홍빈 대장과 함께 지리산둘레길 걸어요

6일~13일까지 245km 산행

텔런트 정은수씨 등도 참여

열손가락 절단이라는 장애를 딛고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정상에 도전 중인 광주 출신 산악인 김홍빈씨가 지리산둘레길 정복에 나선다.

김씨는 ㈜어등산리조트의 후원을 받아 ‘김홍빈대장과 함께 걷는 지리산둘레길’ 행

사를 열고,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7박8일간 전남·전북·경남지역 120여개 마을을 거치는 지리산둘레길 전 구간(245.5km) 산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산행에는 김씨와 텔런트 정은수(여·48)씨 등 5명이 참여하며, 하루 40km이상 산행이라는 강행군에 아영까지 기획하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할 예정이다. 단, 아영은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상 민박집 마당에서 이뤄진다.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14좌 정상 도

전에 앞서 훈련을 겸하는 것은 물론,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었다”며 “이번 산행을 지역의 명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장애의 어려움과 편견을 이겨내고 가셔브루Ⅱ, 시사광마, 에베레스트, 마칼루, 다울라기리, 초오유, K2, 칸첸중가, 마나슬루에 이어 내년 8000m급 열 번째 도전인 나가파르밧(8125m) 정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은누리상품권 1000만원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회장 이정연)는 3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역복지지원 후원금 은누리상품권 1000만원어치를 전달했다. <사진>

이번 후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특히, 후원금 전액을 은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복지증진은 물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탬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연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회장은 “앞으로 중소기업계는 소외계층 복지증진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 내수살리기 실현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응하고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사

◆조선대

▲치과대학장 겸 치의학전문대학원장 김흥중(연임) ▲미술대학장 겸 디자인대학원장 박상호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봉만학·박영순씨 아들 승환군 김용선·박양순씨 딸 진희양=6일(월) 낮 12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나르 바이오스티엄.

동문회

▲목포고등학교 제5회 동창회(회장 조보규)=목포고 제5회 동창회 정기월례회의. 5일(토) 오후 6시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2015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및 आय회. 5일(토) 오전 8시30분 지리산 피아골계곡. 문의 사무국 062-361-2680

▲나광회(회장 기웅섭) 월례회=5일(토) 낮 12시 광주시 동구 진도회관 062-224-6430.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광주 북구동문회=광주 북구동문회 정기총회 및

3대 정회근·김면수 회장 이·취임식. 7일(월)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 그랑시아웨딩타워 010-3627-0635.

▲새광 순천 대산고 정기 동문회(회장 장진환)=8일(화) 오후 7시 광주 남광주시장 2층 횡집 010-3601-7701.

중친회

▲재광 경주김씨 광주·전남 중친회=7일(월)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농성공원(지하철 농성역 1번 출구 앞). 김태원 장군 동상 참배 후 이동. 그린암소 한우 식당 369-8976. 문의 사무국장 김재찬 010-6455-6296.

▲새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이화회 월례회의=8일(화) 오후 6시30분 도지원 회의실 3층 지원점 이달우·이화회장 이승암 062-225-5636.

알림

▲사랑애돌봄사업단 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 파견사업

=서구 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 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모상담, 입양상담 24시간, 무료 숙식보호 및

안전한 분만지원,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학원비 지원 062-232-2043.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리지 서비스(주 5일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모집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 전문인력양성 과정 무료 교육생 모집=시스템운영, 네트워크 보안, 전기시스템 제어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제어, 사물인터넷 & RFID. 모집기간 4일까지. 모집대상 미취업 청년, 관련분야 전공자, 일반인. 교육비 전액 무료, 연수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취업·창업 연계. 문의 061-280-7421. http://www.ictwork.net/

▲광주향교 시민예절교실 무료 강좌=실천생활예절, 지향가정의례, 작명례 및 성례 등 전통예절, 예절지도사 양성교육

과정. 무료수업. 8월31일~10월27일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20분~5시20분(4시간수업). 문의 672-7005, 672-7008.

▲(사)정통풍수지리연구학회(북구청 앞 튜튼정형외과 병원 옆) 주체 풍수지리학 공개강좌= 7일 오후 7시 윤갑원 이사장 무료강연, 교재무료. 문의 062-511-2488.

▲국제적부사협회 창업·부업 과정 무료교육생=발로 인한 인체의 통증(성인병), 족부과 다이어트, 발의 변형예방 교정구, 오소틱의 원리와 기능, 만보걸기운동의 방법 등 창업·부업과정 무료교육. 9월8일, 15일(2회·8시간). 주부·퇴직자·미취업자·일반인 누구나 지원 가능. 문의 062-264-8866, 062-511-0030.

謹 上가 故人의 冥福을 밍니다 弔			
301호 故문호순 님 (여/92세) 子/子婦: 공민호/조수진, 민규/민준주, 민수/나이성 女/婿: 공재영/구영용, 공민자/박신규 •발 인: 9월 4일 •장 지: 보성문학 성령 •연락처: 227-4382		401호 故황규호 님 (남/69세) 子/子婦: 황태훈/김진아, 태철/장유경, 태수/김윤경 未亡人: 이희순 •발 인: 9월 5일 •장 지: 영락중원 •연락처: 227-4383	
402호 故정해숙 님 (여/89세) 子/子婦: 오광원/유영진, 석원/양향아, 양원/손성화 女/婿: 오경자/신현용, 우란/김화인 •발 인: 9월 4일 •장 지: 무안 죽산 성령 •연락처: 227-4314		101호 故선월순 님 (여/84세) 子/子婦: 박주익/조숙희 女/婿: 박관래/조준희, 경자/김길모, 경숙/김형남 未亡人: 이송환 •발 인: 9월 4일 •장 지: 강진 마량 성령 •연락처: 227-4385	
102호 故이복선 님 (남/55세) 子: 이현창, 현호 未亡人: 김귀순 •발 인: 9월 5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